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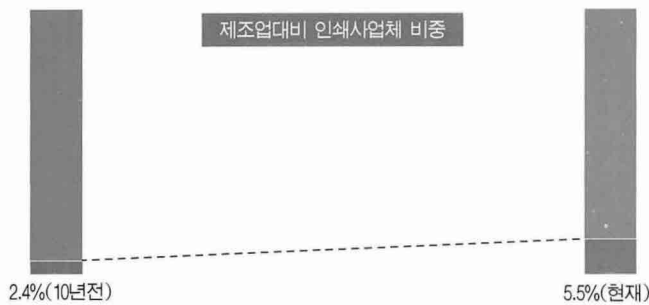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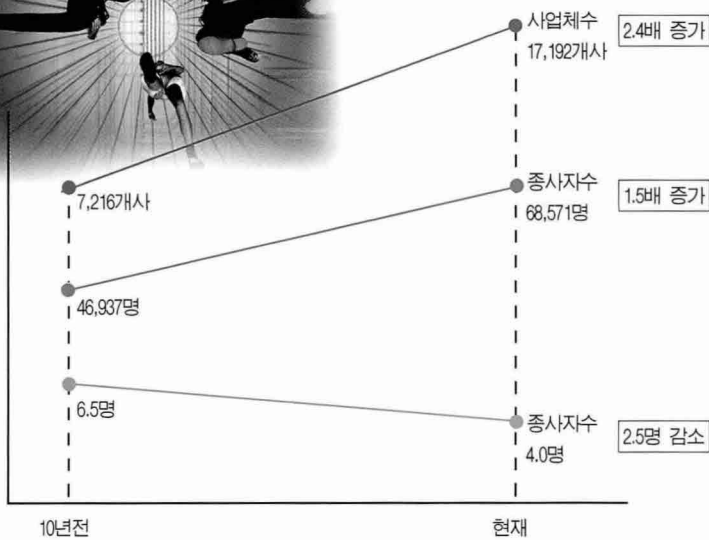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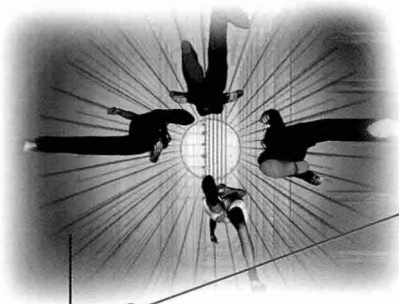
사업체 두 배 늘고 부가가치는 23% 줄었다

통계는 역사의 한 부분을 말해준다. 그만큼 최초의 통계자료는 역사적으로 귀중한 자료가 된다. 통계자료는 한 산업의 전체를 나타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근거자료로 활용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나타낸다.

통계상으로 보든 살아오면서 체험으로 느끼든 전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산업과 업종이 오랜 기간 이어지거나 소멸되고 새로운 업종이 생성되는 등 수레바퀴 돌아가듯 흘러오고 있다. 이중 인쇄업은 오랜 역사와 함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면서 제조업의 대표적인 업종 중의 하나로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쇄업만큼 경영하기 힘든 업종도 없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말이다. 인쇄단가가 10년 전에 비해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그래도 10년이란 세월 속에 인쇄업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종업원 임금 수준도 3배 이상이 증가하는 한편 생산규모도 상당히 늘어났다. 이에 본보에서는 통계로 본 인쇄산업의 변화를 통해 10년 전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본다. <편집자주>





사업체수 2.4배 증가

현재 인쇄사업체수는 17,192개사로 10년전인 7,216개사에 비해 2.4배가 증가했으나 종사자수는 10년전 46,937명에서 68,571명으로 1.5배가 늘어난 데 그쳤다. 10년전에는 사업체당 종사자수가 6.5명이었으나 지금은 4.0명 수준으로 10년전에 비해 사업체당 종사자수의 규모가 상당히 줄어든 셈이다. 물론 10년전 인쇄장비에 비해 생산성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지금의 인력난을 일부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남성근로자의 경우는 10년전 33,441명에서 지금은 50,713명으로 1.5배가 증가했고 여성근로자는 10년전 13,496명에서 17,858명으로 1.3배가 늘어나 아직까지 여성인력의 활용도가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업체당 종사자수에 있어서도 남성근로자는 10년전 4.6명에서 2.9명으로, 여성근로자수는 10년전 1.9명에서 1.0명으로 감소했다. 남성근로자의 비중은 10년전 71.3%에서 지금은 74.0%로 소폭 증가함에 따라 여전히 남성근로자의 비중과 역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년전에 비해 제조업대비 인쇄산업의 규모가 양적으로는 늘어났다. 제조업대비 인쇄사업체의 비중은 10년전 2.4%에서 지금은 5.5%로, 종사자수 비중은 10년전 1.1%에서 지금은 2.0%로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견기업 감소세 뚜렷

내부적으로는 소기업의 비중은 늘어난 반면 중견기업의 비중은 감소했다.

종사자수 50인 미만 소기업의 비중은 10년전 99.0%에서 지금은 99.6%로 늘어났다. 중견기업의 비중은 1.0%에서 0.4%로 감소해 종사자수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종사자 50인 미만 소기업은 10년전 7,141개사에서 지금은 17,126개사로 2.4배가 늘어났지만 종사자 50이상 중견기업은 10년전 75개사에서 지금은 66개사로 감소했다.

사업체당 종사자수도 50인미만 소기업은 10년전 5.4명에서 지금은 3.7명으로 감소했고 50인이상 중기업은 10년전 109.7명에서 지금은 93.0명으로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종사자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5인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할 때 인쇄업의 생산

종업원 1인당 생산액



액은 10년전 1조647억5천5백만원에서 지금은 3조305억5천9백만원으로 2.8배가 증가했다.

제조업대비 생산액 비중은 10년전 0.9%에서 지금은 0.5%로 감소한 수치다. 종사자 월평균 급여액은 10년전 53만3천원에서 지금은 193만6천원으로 3.6배나 증가했다. 사업체당 생산액은 10년전 5억2천3백만원에서 지금은 9억5천6백만원으로 1.8배가 늘어났고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은 10년전 3천2백만원에서 지금은 8천만원으로 2.5배가 증가했다.

저이윤업종 전략

인쇄업의 재무구조는 10년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가가치율은 크게 줄어들어 저이윤업종



인쇄물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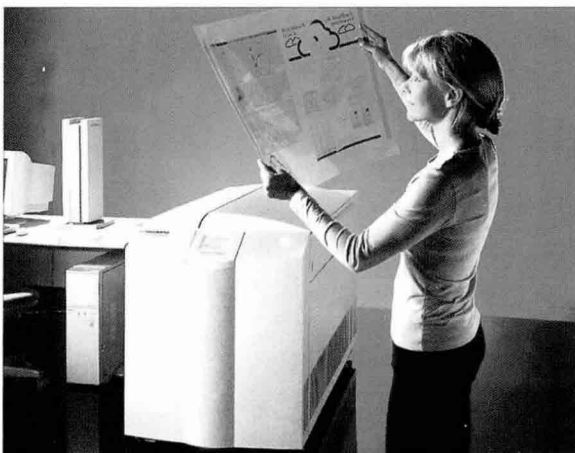
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은 10년전 24.7%에서 36.9%로 부채비율은 10년전 304.9%에서 171.4%로 개선됐으나 부가가치율은 10년 35.6%에서 27.3%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쇄물 수출은 10년전 1억1백만달러에서 2억1천4백만달러로 2.1배가 증가했으나 전체 산업의 수출액대비 인쇄물 수출비중은 10년전 0.14%에서 지금도 0.14%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김광륜차장>

홈페이지 : www.newskp.co.kr

부가가치 창출! '투자비 절감' 이 관건입니다



고가의 장비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고기기로도 훌륭한 제품을 생산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중고인쇄기 및 프리프레스 장비 전문공급 업체인 뉴에스케이피와 상의 하시면 그 길이 보입니다."

(주)뉴에스케이피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6-24 남지빌딩 401
전화 : 2279-0919 팩스 : 2271-1221 홈페이지 : www.newskp.co.kr

취급
품목

각종 인쇄기 · 컴퓨터기기 일체
· 프리프레스장비